

기술 2026-079

2026.07.23.

이 보고서는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KZ정밀(03656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Z정밀(036560)

고사양 플랜트용 펌프·밸브 제조 기반과 주주환원 기조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 중

기업정보(2026.07.14 기준)

대표자	최창규, 이한성
설립일자	1983년 1월 20일
상장일자	1999년 12월 24일
기업규모	대기업
업종분류	유압 기기 제조업
주요제품	펌프, 밸브, 주물 등

시세정보(2026.07.14 기준)

현재가(원)	11,51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813
발행주식수	15,750,000주
52주 최고가(원)	19,130
52주 최저가(원)	11,110
외국인지분율	4.52%
주요주주	제리코파트너스(주) 외 15인, 장형진 외 6인

■ 고사양 플랜트용 펌프·밸브와 소재 내재화 역량 기반의 산업용 유체 기계 제조기업

KZ정밀(이하, ‘동사’)은 199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펌프·밸브·주물 중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플랜트 산업에 필요한 프로세스용 펌프와 배관·계장용 밸브를 공급하며, 자체 주물공장을 기반으로 주물품 생산부터 가공, 조립, 시험까지 주요 공정을 내부화해 제조 안정성과 납기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다. 사업은 핵심 매출원인 펌프와 밸브, 이를 보완하는 주물 사업으로 구성되며, 주요 인증과 고내식·고내마모 소재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고사양 플랜트용 제품군을 전개하고 있다.

■ 플랜트 유지보수 수요와 고사양 공정 설비 수요 기반 고도화

목표시장은 플랜트 공정에서 유체의 이송, 차단, 제어, 압력 조절을 수행하는 유체기계 시장으로, 신규 설비투자뿐 아니라 노후 설비 교체와 정기 유지보수 수요가 함께 발생한다. 해당 시장은 범용 제품에서는 가격 경쟁이 강하지만, 가혹한 운전 조건에서는 소재 대응력, 정밀가공, 누설 방지, 안전 인증, 납품 실적이 주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최근 플랜트 자동화, 에너지 효율 개선, 환경·안전 규제 강화, 수소·LNG·반도체·배터리 공정 확대에 따라 스마트 펌프·밸브, 저누설 밸브, 고내식·고내마모 소재, 예지보전 기능이 중요한 기술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 고사양 제품 사업 기반과 주주환원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추진

동사는 사명 변경과 최대주주 변경 이후 산업용 펌프·밸브·주물 중심의 유체기계 전문기업으로 사업 정체성을 재정비하고, 고사양 플랜트 제품과 주요 산업단지 기반의 사후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에는 현금배당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배당성향 유지, 배당절차 개선, 정관 개정을 통한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 등 주주환원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향후 기존 플랜트 유지보수 수요를 기반으로 수소·LNG·반도체·2차전지 등 고신뢰 공정용 제품 확대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1,387.0	55.7	208.1	15.0	292.1	21.1	8.6	7.2	17.8	1,855	21,362	6.9	0.6
2024	1,127.1	-18.7	152.0	13.5	192.0	17.0	4.7	3.8	25.3	1,219	30,627	10.3	0.4
2025	1,105.1	-2.0	101.8	9.2	93.0	8.4	1.8	1.4	26.3	591	36,900	25.5	0.4

기업경쟁력

고사양 플랜트 고객 대응 경험	정유·석유화학·화학·금속제련·발전 등 공정산업에 펌프·밸브를 공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운전 조건과 사양에 맞춘 주문형 제품 대응력 확보
주물 기반 제조 내재화 역량	펌프·밸브 핵심 부품에 필요한 주물 생산, 가공, 조립, 시험 공정을 내부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 품질 관리, 납기 대응, 소재 추적성 측면에서 경쟁력 보유
주주환원 중심의 기업가치 제고 기초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와 안정적 배당정책을 제시하며 사업 안정성뿐 아니라 주주가치 관리 측면의 투자 매력도 보완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산업용 원심펌프 설계·제조 기술	API-ASME 등 산업 규격에 대응하는 원심펌프 제조기술은 정유·석유화학·화학·금속제련·2차전지 공정의 유체 이송 장비에 적용
고사양 볼 밸브 제조기술	고온·고압, 저누설, 고내식 조건에 대응하는 밸브 설계·실링·소재 기술은 정유·석유화학, LNG, 수소, 발전, 반도체 공정용 플랜트 밸브에 활용
특수 소재 주물 제조기술	Duplex, Super Duplex, Super Austenite, Nickel Base 등 다양한 소재 대응 기술은 부식성·마모성 유체 환경에서 사용되는 펌프·밸브용 핵심 주물품에 적용

시장경쟁력

플랜트 유지보수 수요 기반	산업용 펌프·밸브는 신규 설비뿐 아니라 노후 설비 교체와 정기 정비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동사는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한 안정적 수요 대응 가능
고신뢰 공정 확장 가능성	수소·LNG·반도체·2차전지 등 신규 공정 산업에서 극저온, 고압, 저누설, 방폭 요건이 강화되면서 동사의 고사양 제품과 인증 기반 활용 여지 확대
산업단지 인접 서비스 네트워크	울산·여수·당진·군산 등 주요 산업단지 인근의 서비스 거점은 고객사의 긴급 정비와 사후관리 수요에 대응하는 현장 밀착형 경쟁력으로 작용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고사양 펌프·밸브 설계·제조 역량과 주물 기반 소재 대응력은 정유·석유화학·발전 등 플랜트 산업의 안정적 운전과 유지보수 수요에 직접 대응할 수 있어 가치가 있다.	API-ASME 등 산업 규격 대응 경험, 다양한 특수 소재 주물 내재화, 고온·고압·저누설 밸브 인증 기반을 함께 보유한 업체는 제한적이므로 일정 수준의 희소성이 있다.	펌프·밸브 제조기술 자체는 모방이 가능하지만 장기간의 납품 이력, 고객별 공정 대응 경험, 인증 취득, 소재·가공·시험 공정 축적은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렵다.	기술연구소, 자체 주물공장, 주요 산업단지 인근 서비스센터, 주주환원 정책을 포함한 경영체계를 통해 보유 역량을 사업화할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I. 기업 현황

고사양 플랜트용 펌프·밸브와 소재 내재화 역량 기반의 산업용 유체기계 제조기업

동사는 199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산업용 유체기계 제조기업으로, 펌프·밸브·주물 중심의 단일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플랜트 산업에 필요한 프로세스용 펌프와 배관·계장용 밸브를 공급하며, 자체 주물공장을 기반으로 주물품 생산부터 가공, 조립, 시험까지 주요 공정을 내부화해 제조 안정성과 납기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다. 사업은 핵심 매출원인 펌프와 밸브, 이를 보완하는 주물 사업으로 구성되며, 주요 인증과 고내식·고내마모 소재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고사양 플랜트용 제품군을 전개하고 있다. 판매 측면에서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 인근 킷서비스센터와 해외 대리점망을 활용해 내수 유지보수 수요와 해외 프로젝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1983년 1월 설립된 산업용 유체기계 제조기업으로, 199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단일 법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주된 사업은 산업용펌프, 밸브, 주물의 제조·판매로 구성된다. 핵심 사업모델은 정유, 석유화학, 화학, 금속제련, 식·음료, 2차전지, 반도체, 발전 등 플랜트 산업에 필요한 프로세스용 펌프와 배관·계장용 밸브를 공급하고, 관련 부품 및 서비스 수요를 함께 확보하는 구조이다. 주요 제품은 Chemical Process Pump, Chemical Plant Valve, 주강 및 스테인리스강 주물이며, 주요 상표로는 MAGGUARD와 STARVAL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 펌프 사업은 1986년 미국 Flowserve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본격화되었으며, 1996년 자체 주물공장 설립 이후 펌프에 사용되는 핵심 주물품의 생산부터 가공, 조립, 시험에 이르는 주요 제조 공정을 내부화하였다. 생산 구조는 소재와 완제품 제조가 결합된 형태로, 주물 부문은 탄소강,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뿐 아니라 Duplex, Super Duplex, Super Austenite 등 고내식·고내마모 특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재질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정유·석유화학·화학플랜트 등 부식성 유체를 취급하는 산업용 펌프와 밸브의 품질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동사는 외부 조달 의존도를 일부 낮추고, 고객별 사양에 맞춘 제품 제작과 품질 관리, 납기 대응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고객군은 국내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발주처, 국내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를 통한 해외 프로젝트 고객, 해외 직접 고객, 유지보수 수요처로 구분된다. 동사는 울산, 여수, 당진, 군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 인근에 킷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사전점검과 사후서비스를 결합한 고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핵심 경쟁력은 프로세스 펌프와 볼밸브에 대한 장기간의 제조 경험, 고내식·고내마모 소재 대응력, 주물 기반의 공정 내재화, 국내외 고객 대응 서비스망으로 판단된다. 향후 동사는 기존 정유·석유화학 중심 수요를 기반으로 하되, 2차전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등 공정 유체 이송 수요가 발생하는 산업으로 적용처를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1983.01	법인 설립
1991.05	기술연구소 설치
1999.12	코스닥 시장 상장
2007.06	대성정밀 인수 및 항공공장 가동
2010.08	볼 밸브부문 CE 마크(PED 97/23/EC) 획득
2014.02	밸브공장 설립
2019.05	Severe Process Floating Type Ball Valve 개발
2020.04	고온 고압용 Trunnion Type Ball Valve 개발
2021.06	Rising Stem Top Entry Ball Valve 개발

자료: 동사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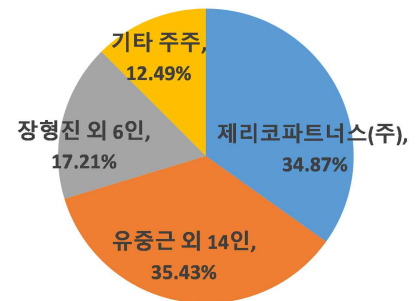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7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제리코파트너스(주)로, 전체 발행주식(15,750,000주) 중 34.87%에 해당하는 5,492,083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종근 외 14인의 특수관계자가 5,579,726주(35.43%)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70.30%이다. 한편, 장형진 외 6인이 2,710,187주(17.21%)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968,004주(12.49%)는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지배구조는 최대주주 변경 이후에도 특수관계인 중심의 높은 지분 결속력이 유지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경영 의사결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일반주주의 의결권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이후의 경영 전략 방향, 이사회 구성 변화,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이 주요 관찰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제리코파트너스(주)	5,492,083	34.87%	최대주주
유종근 외 14인	5,579,726	35.43%	특수관계인
장형진 외 6인	2,710,187	17.21%	
기타 주주	1,968,004	12.49%	
합계	15,750,000	100.00%	



자료: 동사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6.07, 2026.04),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사업 영역은 유체기계사업부 단일 부문으로 공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펌프, 밸브, 주물의 세 가지 제품군으로 구분된다. 펌프는 정유, 석유화학, 화학, 식·음료, 금속제련, 2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 공정에서 액체를 이송하는 핵심 장비이며, 동사는 API-610, ASME-B73.1/B73.2/B73.3 등 주요 규격에 대응하는 원심펌프를 생산한다. 펌프 사업은 동사의 제조 이력과 고객 기반이 가장 오래 축적된 핵심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밸브 사업은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발전 플랜트에서 액체, 기체, 분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배관·계장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동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자체 볼 밸브(BALL VALVE)를 개발·제조해 왔으며, API 6D, ISO 15848-1, SIL(Safety Integrity Level) 3, CE, CRN 등 국내외 인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Metal Seat, High Alloy, 대형·고온·고압 밸브 등 고사양 제품 개발을 통해 범용 밸브보다 기술 요구도가 높은 플랜트용 제품군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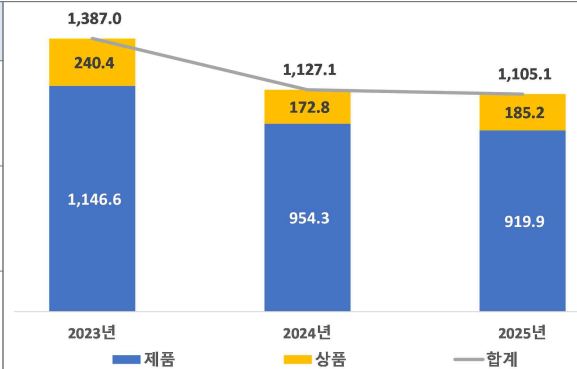
주물 사업은 독립적인 외부 매출 확대보다는 펌프와 밸브 사업의 제조 경쟁력을 보완하는 기반 사업 성격이 강하다. 동사는 탄소강,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Duplex, Super Duplex, Super Austenite, Martensite, Nickel Base 등 다양한 소재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펌프·밸브 부품에 필요한 주물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원재료 조달과 부품 품질을 일정 수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펌프 및 밸브 사업의 납기·품질 경쟁력과 연결된다.

사업 간 관계는 펌프와 밸브가 외부 고객 매출을 창출하는 핵심 제품군이고, 주물은 핵심 부품의 내재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는 구조로 정리된다.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신규 산업을 대규모로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유체기계 기술을 기반으로 전방 플랜트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고사양 펌프·밸브와 유지보수 서비스의 결합이 포트폴리오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동사의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제품 (펌프/밸브/주물)	1,146.6	82.7%	954.3	84.7%	919.9	83.2%
상품 (펌프/밸브/주물)	240.4	17.3%	172.8	15.3%	185.2	16.8%
매출 합계	1,387.0	100.0%	1,127.1	100.0%	1,105.1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판매조직은 유체기계사업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사업부장 외 46명이 판매조직에 속해 있다. 판매 방식은 단순 유통형 영업보다는 고객의 공정 조건, 사용 유체, 온도·압력, 재질, 규격, 납기 요구를 반영하는 기술 기반 영업 성격이 강하다. 특히 플랜트용 펌프와 밸브는 제품 사양이 표준화되기 어렵고 프로젝트별 조건이 상이하므로, 견적·설계 검토·제작·시험·납품·정비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형 매출 구조가 형성된다.

2026년 1분기 기준 판매경로별 비중은 내수 69%, Local 및 직수출 31%로 나타난다. 2025년 연간 기준으로는 내수 72%, Local 및 직수출 28%였으나 2026년 1분기에는 수출 비중이 다소 확대되었다. 이는 국내 플랜트 유지보수 수요가 여전히 핵심 기반인 가운데, 해외 직접 고객 및 EPC 경유 수요가 매출 보완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객 확보 구조는 기존 국내 고객과의 장기 거래, 국내 EPC사를 통한 해외 프로젝트 참여, 해외 대리점 및 직접 영업망을 통한 수주 활동으로 구성된다. 동사는 2015년 이후 해외 고객 직접 판매를 확대해 왔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독일, 미국, 중동, 동남아 등 해외 파트너와 펌프·밸브 관련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국내 산업단지 중심의 수요 의존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해외 프로젝트 수주는 납기, 인증, 환율, 현지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동사의 판매전략은 품질 방침, 인증 기반 신뢰성, 신속한 서비스 대응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울산, 여수, 당진, 군산의 킷서비스센터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 고객에 대한 유지보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펌프스쿨 운영은 고객 실무자 교육을 통해 제품 운용 이해도를 높이는 보조 수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동사의 경쟁전략은 단순 가격 경쟁보다 제품 신뢰성, 규격 대응력, 정비 접근성, 고객 맞춤형 제작 역량을 통해 반복 수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II. 시장 동향

플랜트 유지보수 수요와 고사양 공정 설비 수요 기반으로 스마트화·친환경화·고신뢰성 강화

목표시장은 플랜트 공정에서 유체의 이송, 차단, 제어, 압력 조절을 수행하는 핵심 유체기계 시장으로, 신규 설비투자뿐 아니라 노후 설비 교체와 정기 유지보수 수요가 함께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 해당 시장은 범용 제품에서는 가격 경쟁이 강하지만, 고온·고압·극저온·부식성 유체 등 가혹한 운전 조건에서는 소재 대응력, 정밀가공, 누설 방지, 안전 인증, 납품 실적이 주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최근 플랜트 자동화, 에너지 효율 개선, 환경·안전 규제 강화, 수소·LNG·반도체·배터리 공정 확대에 따라 스마트 펌프·밸브, 저누설 밸브, 고내식·고내마모 소재, 예지보전 기능이 중요한 기술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 산업용 펌프 및 밸브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산업용 펌프 및 밸브 시장으로, 정유·석유화학·화학·금속제련·2차전지·반도체·발전 등 산업 플랜트에서 액체·기체·분체의 이송, 차단, 제어, 압력 조절을 수행하는 유체기계 시장이다. 펌프 시장의 후방 산업은 임펠러, 케이싱, 베어링, 봉수링 등 펌프 부품과 금속가공 산업이며, 전방 산업은 플랜트,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설비투자 산업으로 구성된다.

해당 시장의 수요는 신규 플랜트 건설, 설비 증설, 노후 설비 교체, 정기 보수, 안전·환경 규제 대응 투자에서 발생한다. 펌프와 밸브는 플랜트의 핵심 공정 설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설비투자 사이클에 민감하지만, 설비가 가동된 이후에도 유지보수와 교체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발전·LNG·수소 등 고위험 공정에서는 제품 고장이나 누설이 생산 차질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가격보다 운전 신뢰성, 납품 이력, 인증, 소재 대응력, 사후서비스 역량이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작용한다.

시장 구조는 범용 제품 영역과 고사양 제품 영역이 구분된다. 범용 펌프와 밸브는 국내외 제조업체가 다수 존재해 가격 경쟁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고온·고압·극저온·고부식성 환경에 사용되는 제품은 설계, 소재, 가공정밀도, 시험검증, 국제 인증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산업용 밸브의 경우 API,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SME,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SIL 등 규격 충족 여부가 프로젝트 참여 조건이 될 수 있으며, EPC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납품 실적과 품질 문서 대응 능력도 수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적으로는 고객별 공정 조건에 맞춘 주문형 생산 성격이 강하다. 사용 유체, 압력, 온도, 유량, 재질, 접속 방식, 인증 요건에 따라 제품 사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 제품 대량생산보다 설계 검토, 소재 선정, 가공, 조립, 시험, 문서화 역량이 중요하다. 한편, 모터와 액추에이터 등 주요 부품은 거래처 단가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동 시장에서는 제품 기술력뿐 아니라 원가 관리, 조달 안정성, 납기 대응력, 유지보수 접근성이 함께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산업용 펌프 시장은 플랜트·조선·석유화학 설비투자와 연동된 수요 기반이 유지되어 완만한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 국내 펌프 시장은 2024년 13.6억 달러에서 2029년 18.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5.8%로 제시된다. 글로벌 펌프 시장은 2024년 613.2억 달러에서 2029년 790.1억 달러로 연평균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산업용 밸브 시장 역시 관련 산업의 수요 증가와 함께 2023년 4조 8,967억 원에서 2028년 7조 589억 원으로 연평균 7.6%로 성장할 전망이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수요 측면에서는 전통 플랜트와 신산업 공정이 동시에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정유·석유화학 설비는 기존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배터리, 반도체, 수소, LNG, 수처리, 환경설비는 고청정·고내식·극저온·고압 조건에 대응하는 제품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Oil 2025 관련 발표에서 석유화학 산업이 2026년 이후 석유 수요 증가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고, 정유 연료 수요의 성장 둔화와 별개로 화학·소재 공정용 유체기계 수요가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 변화의 핵심은 고효율, 고신뢰성, 저누설, 스마트화로 요약된다. 펌프 시장에서는 에너지 절감, 실시간 모니터링, 예지보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 펌프가 확산되고 있으며, 공정 효율 향상과 설비 정지 리스크 감소를 목표로 한다. 밸브 시장에서는 IoT(Internet of Things) 센서, 무선 통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AI(Artificial Intelligence) 분석을 활용해 압력, 온도, 개폐 상태, 누설 여부를 감시하는 스마트 밸브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펌프와 밸브를 데이터 기반 설비관리 장치로 전환시키는 흐름으로 판단된다.

환경 및 안전 규제도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밸브 분야에서는 비산배출 저감, 메탄 누설 관리, 폭발 위험 환경 대응, 기능 안전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ISO 15848, ATEX, SIL 등 인증 요건은 고사양 제품 시장에서 공급자 선별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수소와 LNG 산업에서는 극저온·고압 조건, 수소취성, 미세 누설 위험을 고려한 금속 시트, 연장 스템, 고합금 소재, 이중 씰링 구조 등이 요구된다. 펌프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설계, 규제 대응 비용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 제품 효율과 유지보수성을 함께 개선하는 기술 대응이 필요하다.

소재와 제조공정 측면에서는 듀플렉스강, 슈퍼듀플렉스강, 니켈계 합금, 세라믹 라이닝, 특수 코팅 등 고내식·고내마모 소재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고온·고압·부식성 유체를 취급하는 플랜트에서는 제품 수명과 정비주기가 고객의 총운영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재 선택과 표면처리, 정밀가공 역량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시장 변화는 동사에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제공한다. 기회 요인은 국내 석유화학단지 기반의 유지보수 수요, 고사양 펌프·밸브 수요 확대, 2차전지·반도체·친환경 에너지 등 적용처 다변화, 주물 기반 제조 내재화를 통한 품질·납기 대응력이다. 반면 리스크 요인은 범용 제품의 가격 경쟁 심화, 전방 플랜트 투자 지연 가능성, 국제 규격과 인증 대응 비용,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의 레퍼런스 요구, 환율 및 원재료 가격 변동이다. 따라서 동사의 시장 대응력은 정유·석유화학 고객 기반을 유지하면서 고사양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 영업망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프로젝트 수주와 반복적인 유지보수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글로벌 펌프 시장

(단위 : 억 달러)

[그림 2] 국내 산업용 밸브 시장

(단위 : 억 원)



자료: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동사는 산업 플랜트용 펌프·밸브 제조기술을 핵심 기반으로, 고객 공정 조건에 맞춘 주문형 설계·제작 역량과 고내식·고내마모 소재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다. 펌프 부문에서는 주요 산업 규격에 대응하는 원심펌프 제조 경험을 축적했으며, 밸브 부문에서는 볼 밸브를 중심으로 고온·고압, 저누설, 고신뢰성 플랜트용 제품군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자체 주물공장을 기반으로 주물품 생산, 가공, 조립, 시험 공정을 내부화해 품질 안정성과 납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은 특수 유체 이송 펌프, 긴급 차단장치 밸브, 독성가스 밸브 등 가혹한 운전 조건과 산업안전 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초저온용 볼밸브 관련 특허와 제품 브랜드 상표권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핵심 보유기술은 산업 플랜트의 유체 이송과 제어에 필요한 펌프·밸브 제조기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산업용 펌프와 밸브는 공정 안정성, 누설 방지, 내식성, 내마모성, 장기 운전 신뢰성이 중요한 제품군이므로,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단순 생산능력보다 고객 공정 조건에 대한 설계 대응력과 제조 품질 관리 역량에서 나타난다.

펌프 부문에서는 API-610 및 ASME-B73 계열 등 주요 산업 규격에 대응하는 원심펌프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미국 Flowserve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펌프 생산을 본격화한 이후, 정유·석유화학·화학·금속제련 등 부식성과 마모성이 높은 유체를 취급하는 산업에 제품을 공급해 왔다. 펌프는 공정 유체를 안정적으로 이송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임펠러, 케이싱, 축계, 씰링, 베어링 등 구성요소의 정밀도와 내구성이 중요하며, 동사는 장기간의 플랜트 공급 경험을 통해 고객별 사양에 맞춘 제품 설계·제작·시험 역량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밸브 부문에서는 볼 밸브를 중심으로 고온·고압, 고내식, 고신뢰성 플랜트용 제품군에 대응하고 있다. 밸브는 유체 흐름을 차단하거나 조절하고, 역류 방지와 압력 제어를 수행하는 핵심 기자재로, 공정 조건에 따라 본체, 시트, 스템, 액추에이터, 실링 구조의 설계가 달라진다. 동사는 Metal Seat, High Alloy, 대형·고온·고압 밸브 등 고사양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왔으며, 정유·석유화학뿐 아니라 LNG, 수소, 발전, 반도체 등 고신뢰 공정으로 확대되는 시장 요구와 연결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주물 및 소재 대응 역량은 동사의 제조 기반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동사는 1996년 자체 주물공장 설립 이후 펌프와 밸브에 필요한 핵심 주물품의 생산, 가공, 조립, 시험 공정을 내부화하였다. 탄소강,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Duplex, Super Duplex, Super Austenite, Martensite, Nickel Base 등 다양한 소재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부식성·마모성 유체와 고온·고압 환경에 사용되는 펌프·밸브의 품질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소재와 부품을 외부 조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구조는 납기 대응, 품질 추적성, 고객 맞춤형 제작 측면에서 동사의 차별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동사는 생산 이후의 서비스 대응 체계도 기술 경쟁력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울산, 여수, 당진, 군산 등 주요 석유화학단지 인근에 퀵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사전 점검과 사후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있고, 펌프·밸브 제품 특성상 설치 이후의 운전 안정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비스 네트워크는 반복 수요 확보와 고객 유지에 기여한다. 종합하면 동사의 핵심 보유기술은 고사양 펌프·밸브 설계·제조 기술, 고내식·고내마모 소재 대응력, 주물 기반 공정 내재화, 플랜트 고객 대응 서비스 역량으로 정리된다.

■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활동은 펌프·밸브 제품의 품질 향상과 고사양 제품군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6년 1분기 기준 기술연구소는 펌프기술연구소와 밸브기술연구소로 구성되어 있고, 대규모 선행 연구보다는 제품 개선, 고객 사양 대응, 고기능 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실용적 연구개발 구조로 판단된다.

동사의 연구개발은 산업용 펌프·밸브가 사용되는 고온·고압, 부식성, 독성가스 등 가혹한 공정 환경에 대응하는 제품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펌프 분야에서는 VERTICAL MOLTEN SULFUR 펌프 개발을 통해 특수 유체 이송 안정성과 내구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밸브 분야에서는 긴급 차단장치 밸브와 독성가스 밸브 개발을 통해 산업안전, 누설 방지, 비상 차단 기능 등 고위험 플랜트에서 요구되는 신뢰성 확보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주물 소재, 가공, 조립, 시험 공정을 내부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 제품 제작과 검증 과정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특히 펌프·밸브는 고객별 공정 조건에 따라 재질, 실링, 시트, 압력 등급,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제품이므로, 연구개발과 생산기술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동사는 이를 통해 제품 라인업 확대뿐 아니라 원재료 조달, 제조공정 개선, 수입대체, 고사양 제품 개발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연구개발 방향은 산업용 펌프·밸브 시장의 기술 변화와 맞물려 고효율, 고내구, 저누설, 극한환경 대응,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수소, LNG,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등 신규 공정 산업은 기존 정유·석유화학 대비 더 높은 청정도, 내식성, 정밀 제어, 안전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사가 보유한 펌프·밸브 설계 경험과 소재 대응력을 고부가 제품으로 연결하는 것이 연구개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동사는 펌프·밸브 및 관련 공정 소재 분야에서 특허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 측면에서는 초저온용 볼밸브 관련 등록특허를 복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은 LNG, 액화질소, 액화산소 등 초저온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 구조와 실링 안정성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동사는 전해 제련용 양극판 및 제조방법에 관한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특허는 주력 사업의 핵심 특허라기보다는 소재·공정 기자재 분야의 인접 기술자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표권 측면에서 MAGGUARD와 STARVAL을 포함해 다수의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고, 두 상표권은 각각 동사의 펌프 제품군, 밸브 제품군과 연결되는 주요 브랜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산업용 펌프·밸브 시장은 프로젝트 수주와 납품 이력, 제품 신뢰도, 사후관리 경험이 중요한 시장이므로, 상표권은 단순 명칭 보호를 넘어 장기간 축적된 제품 인지도와 고객 신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동사는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등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해 산업용 펌프·밸브 공급업체로서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플랜트 고객사의 벤더 등록과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 제품 측면에서는 밸브 관련 API 6D-Q1, API 607, API 6FA, ISO 15848-1, TA-Luft, CRN, SIL 3, CE 등 다수의 인증을 확보해 석유·가스, 정유·석유화학, 발전 등 고위험 공정에서 요구되는 설계·시험·화재안전·기능안전·저누설 요건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ATEX 인증을 통해 방폭 환경용 펌프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JIS G 5121 인증으로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제조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발전5사 정비적격기업 인증은 발전설비 정비·제작·수리 시장 진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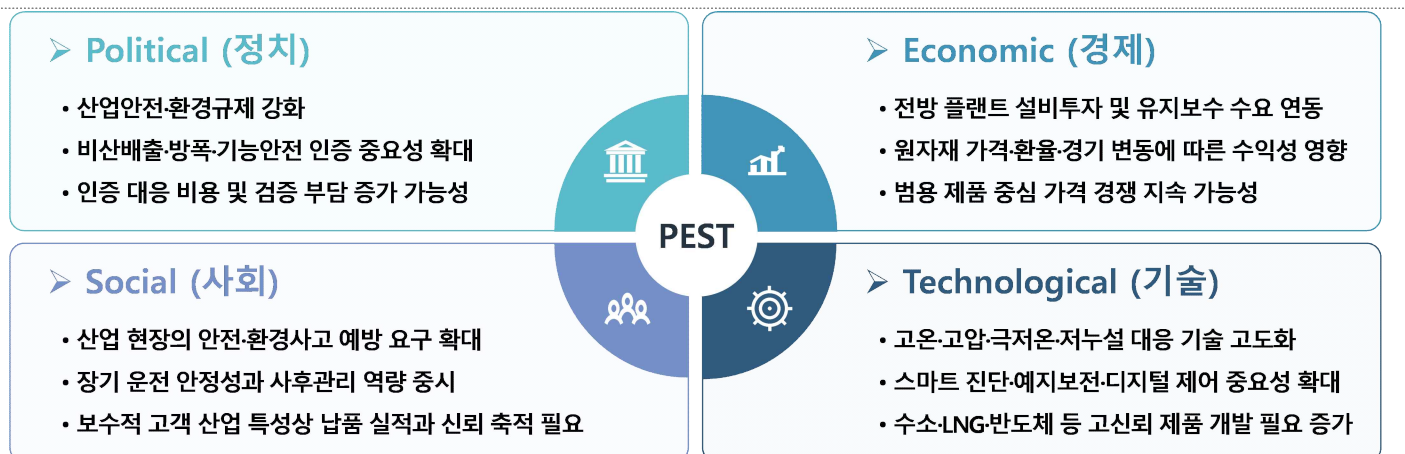
동사가 속한 산업용 펌프·밸브 시장은 정유·석유화학, 발전, 수소·LNG, 반도체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산업안전, 환경규제,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비산배출 저감, 유해가스 누설 방지, 방폭, 기능안전, 화재안전 등 규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ISO 15848-1, ATEX, SIL, API 등 인증 대응력이 시장 진입과 수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동사는 관련 인증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고위험 플랜트 시장 대응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규제 기준이 고도화될수록 추가 인증 비용과 시험·검증 부담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동사의 수요는 정유·석유화학, 조선, 발전, 플랜트, 2차전지, 반도체 등 전방 산업의 설비투자과 유지보수 사이클에 따라 좌우된다. 산업용 펌프·밸브는 신규 플랜트 건설 시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고, 설비 가동 이후에도 교체·정비 수요가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일정한 수요 기반은 존재한다. 다만 전방 산업의 투자 지연,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는 프로젝트 발주와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범용 제품 영역에서는 국내외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설비 안정성, 작업자 안전, 환경사고 예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고신뢰 펌프·밸브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누설, 폭발, 독성가스 유출, 설비 정지와 같은 사고는 기업의 생산성과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사는 단순 가격보다 장기 운전 안정성, 유지보수 편의성, 납품 이력, 사후 대응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동사는 주요 석유화학단지 인근 킷서비스센터와 장기간의 플랜트 공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나, 고객 산업이 보수적인 만큼 신규 시장 확대에는 실적과 신뢰 축적이 필요하다.

산업용 펌프·밸브 시장은 고온·고압, 극저온, 고내식, 고내마모, 저누설, 스마트 제어 기술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펌프 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 예지보전, 공정별 맞춤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밸브 분야에서는 Metal Seat, High Alloy, 기능안전, 저배출, 스마트 액추에이터 및 모니터링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동사는 펌프·밸브 설계·제조 경험, 자체 주물 기반의 소재 대응력, 초저온 밸브 관련 특허와 다수 인증을 바탕으로 고사양 제품 대응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향후 스마트 진단, 디지털 제어, 수소·LNG·반도체용 초고신뢰 제품 분야에서 기술 고도화와 추가적인 지식재산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내수 둔화 속 견조한 재무안정성을 유지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1,387.0억 원, 2024년 1,127.1억 원, 2025년 1,105.1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6년 1분기에는 229.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 감소와 판관비 부담 확대의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023년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6년 1분기에는 금융수익 증가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되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증가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2025년 기준 26.3%에서 2026년 1분기 28.9%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지속하고 있다.

■ 수출 확대 기반의 매출 회복 가능성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1,387.0억 원, 2024년 1,127.1억 원, 2025년 1,105.1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8.7%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감소율이 2.0%로 완화되었다. 2025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석유화학산업 불황,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변동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다.

동사는 유체기계사업부 단일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펌프·밸브·주물을 중심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제품 매출이 2023년 1,146.6억 원, 2024년 954.3억 원, 2025년 919.9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상품 매출 역시 240.4억 원, 172.8억 원, 185.2억 원을 기록해 2025년에는 회복됐지만 2023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내수 매출은 2023년 1,094.3억 원에서 2024년 846.7억 원, 2025년 791.7억 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 수출 매출은 292.8억 원, 280.4억 원, 313.4억 원으로 2025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며 해외시장 확대가 내수 부진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석유화학 및 플랜트 투자 둔화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해외 영업망 확대와 수출 비중 증가를 통해 매출 기반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22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217.1억 원 대비 증가하였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내수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매출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플랜트 투자 회복과 해외시장 확대 여부가 외형 개선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매출총이익률은 개선되었으나 금융손익 영향으로 순이익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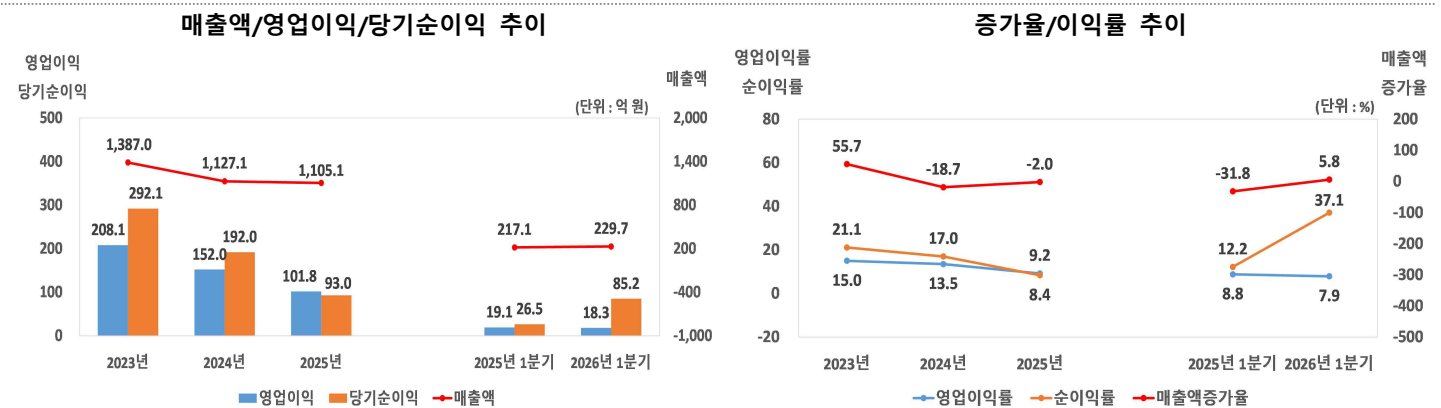
동사의 3개년 영업이익은 2023년 208.1억 원, 2024년 152.0억 원, 2025년 101.8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각각 15.0%, 13.5%, 9.2%로 하락하였다. 매출원가율은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2023년 73.8%, 2024년 71.3%, 2025년 68.2%로 낮아짐에 따라 매출총이익률 역시 개선되었다. 다만, 판관비율은 2023년 11.2%, 2024년 15.2%, 2025년 22.6%로 상승하여 영업이익률 개선효과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292.1억 원, 2024년 192.0억 원, 2025년 93.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순이익률은 21.1%, 17.0%, 8.4%로 낮아졌다. 2025년 금융수익은 49.5억 원으로 2024년 95.6억 원 대비 감소했고, 금융원가는 22.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배당금수익 감소와 이자비용 증가가 순이익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18.3억 원, 당기순이익은 85.2억 원으로 금융수익 확대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종합적으로 영업이익률은 비용 부담 확대로 다소 하락했으나, 금융수익 증가에 힘입어 당기순이익과 순이익률은 크게 개선되었다. 향후 본원적 영업수익성 회복을 위해 매출총이익률 개선과 비용 효율화가 필요하다.

[그림 4]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투자자산 평가 확대되며, 자본완충력 확보

동사의 3개년 자산총계는 2023년 3,963.5억 원, 2024년 6,044.5억 원, 2025년 7,340.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이익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반영되면서 자산 총계가 증가하였다. 유동비율은 2023년 370.7%, 2024년 442.6%, 2025년 184.6%로 나타났으며, 2025년의 경우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로 인한 유동부채 증가로 유동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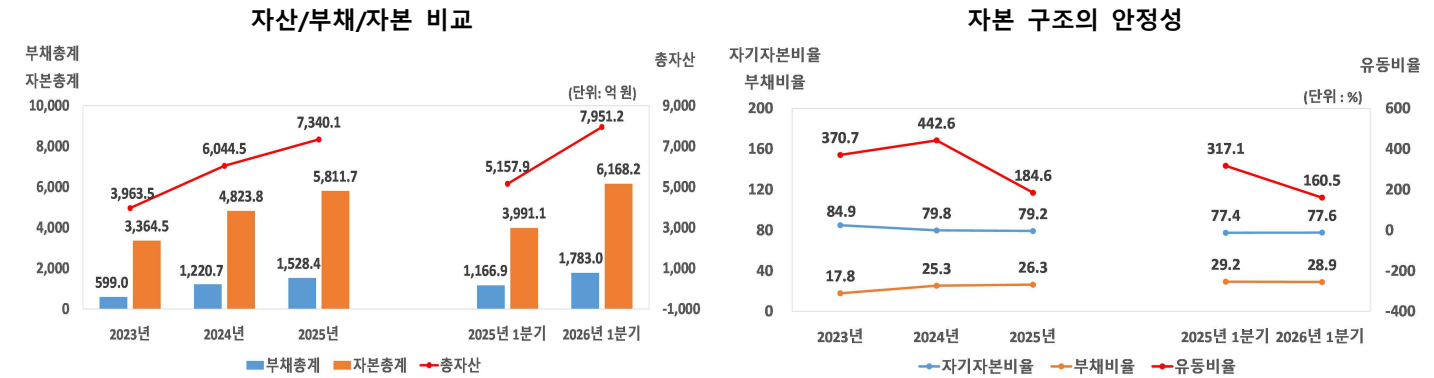
부채총계는 2023년 599.0억 원, 2024년 1,220.7억 원, 2025년 1,528.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부채비율은 2023년 17.8%, 2024년 25.3%, 2025년 26.3%로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2025년 유동부채가 483.1억 원으로 나타났고, 장기차입금 300.0억 원이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분류되면서 단기 상환 부담 관리는 필요한 상황이다.

자본총계는 2023년 3,364.5억 원, 2024년 4,823.8억 원, 2025년 5,811.7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84.9%, 2024년 79.8%, 2025년 79.2%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이익잉여금은 2024년까지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배당금 지급과 확정급여 재측정 손실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2026년 1분기 유동비율 160.5%, 부채비율 28.9%, 자기자본비율 77.6%이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높은 자기자본 비중과 낮은 부채비율을 바탕으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현금창출력과 부채 관리가 재무건전성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1,387.0	1,127.1	1,105.1	217.1	229.7
매출액증가율(%)	55.7	-18.7	-2.0	-31.8	5.8
영업이익	208.1	152.0	101.8	19.1	18.3
영업이익률(%)	15.0	13.5	9.2	8.8	7.9
순이익	292.1	192.0	93.0	26.5	85.2
순이익률(%)	21.1	17.0	8.4	12.2	37.1
부채총계	599.0	1,220.7	1,528.4	1,166.9	1,783.0
자본총계	3,364.5	4,823.8	5,811.7	3,991.1	6,168.2
총자산	3,963.5	6,044.5	7,340.1	5,157.9	7,951.2
유동비율(%)	370.7	442.6	184.6	317.1	160.5
부채비율(%)	17.8	25.3	26.3	29.2	28.9
자기자본비율(%)	84.9	79.8	79.2	77.4	77.6
영업현금흐름	202.7	222.0	121.6	103.9	51.7
투자현금흐름	72.8	-382.2	-212.8	75.7	-67.5
재무현금흐름	-67.4	200.8	-131.7	-1.7	-1.8
기말현금	293.4	334.0	110.6	511.9	93.2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향후 실적은 단기적으로 2024~2025년 매출 감소 이후 완만한 회복 여부가 핵심으로 판단된다. 전체 매출은 2023년 1,387.0억 원에서 2024년 1,127.1억 원, 2025년 1,105.1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6년에는 1,140.0억 원 수준으로 소폭 회복이 예상된다. 이는 주력인 제품 매출이 2025년 919.9억 원에서 2026년 930.0억 원으로 제한적인 개선에 그치는 반면, 상품 매출이 185.2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매출 회복을 보완하는 구조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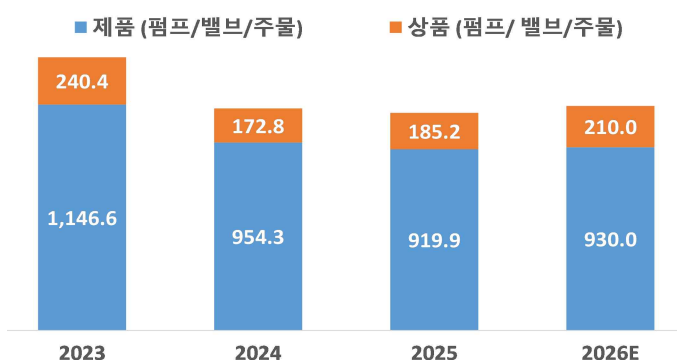
제품 부문은 펌프·밸브·주물의 자체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핵심 사업으로, 정유·석유화학·화학·금속제련·발전 등 기존 플랜트 고객사의 설비투자 및 유지보수 수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신규 프로젝트 수주 확대보다는 기존 고객 기반의 교체·정비 수요와 고사양 제품 대응을 통해 매출 방어를 이어가는 흐름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온·고압, 고내식, 저누설 등 고사양 펌프·밸브 수요가 확대될 경우 동사의 제품 매출 회복 여지가 존재한다.

상품 부문은 자체 제조 제품을 보완하는 펌프·밸브·주물 관련 외부 조달 및 유통 성격의 매출로, 2025년 이후 증가 흐름이 예상된다. 이는 고객사의 유지보수, 부품 교체, 프로젝트별 패키지 공급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품 매출이 일정 부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상품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경우 매출 회복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제품 매출 대비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어 향후 실적의 질은 자체 제조 제품의 회복 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2026년 제품 매출의 완만한 개선과 상품 매출 확대를 바탕으로 전체 매출의 소폭 반등이 예상된다. 다만 실적 회복 폭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으로, 향후 성장성은 정유·석유화학 등 기존 플랜트 유지보수 수요의 안정성, 수소·LNG·반도체·2차전지 등 고사양 공정 분야로의 공급 확대, 주물 내재화와 인증 기반을 활용한 고부가 제품 비중 증가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방 설비투자 지연, 범용 제품 가격 경쟁, 원자재·환율 변동은 실적 개선 속도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림 6]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구분	2023	2024	2025	2026E
제품(펌프/밸브/주물)	1,146.6	954.3	919.9	930.0
상품(펌프/밸브/주물)	240.4	172.8	185.2	210.0
합계	1,387.0	1,127.1	1,105.1	1,14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고사양 유체기계 사업 기반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추진 중

동사는 사명과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나 주력사업은 기존의 펌프·밸브·주물 중심으로 유지되었고, 고사양 플랜트 제품과 주요 산업단지 기반의 사후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6년에는 현금배당 결정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배당성향 유지, 배당절차 개선, 정관 개정을 통한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 등 주주환원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향후 정유·석유화학 등 기존 플랜트 유지보수 수요를 기반으로 수소·LNG·반도체·2차전지 등 고신뢰 공정용 제품 확대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전방 투자 변동성과 가격 경쟁, 원자재·환율 부담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는 2025년 사명 변경을 통해 케이젯정밀로 기업 정체성을 재정비하고, 산업용 펌프·밸브·주물 중심의 유체기계 전문기업으로서 기존의 사업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25년 군산 고객센터를 추가하며 기존 울산·여수·당진 중심의 서비스 거점을 보완했고, 이는 주요 산업단지 고객에 대한 정비·A/S 대응력을 강화한 변화로 평가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2024년 최대주주 변경 이후 2025년 사명 변경과 정관 정비가 이어지며 새로운 경영 체제 하에서 회사 운영 방향이 재정렬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6년에는 주주환원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여,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8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으며, 2022년~2024년 기준 1주당 배당금이 400원, 600원, 800원으로 확대된 후 2025년에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배당 결정 및 주주환원 정책의 절차적 투명성을 보완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주주환원 정책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배당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동사는 배당성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배당액을 먼저 확정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가 배당 규모를 확인한 이후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기존의 관행보다 주주 친화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절차 개선을 제도화했으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배당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향후 전망

동사의 사업은 기존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기반의 유지보수 수요와 고사양 펌프·밸브 수요에 대한 대응력에 따라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용 펌프와 밸브는 신규 플랜트 투자뿐 아니라 노후 설비 교체, 정기 정비, 안전·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교체 수요가 함께 발생하는 품목이므로, 동사는 기존 고객 기반과 산업단지 서비스 거점을 활용해 반복 수요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 다만 전방 플랜트 투자 지연, 범용 제품의 가격 경쟁, 원자재·환율 변동은 수주와 수익성 개선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중장기적으로 수소·LNG,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등 고신뢰 공정으로 적용처 확대가 주요 기회 요인이다. 해당 산업에서는 극저온, 고압, 고내식, 저누설, 방폭, 기능안전 등 까다로운 제품 요건이 요구되므로, 동사가 보유한 소재 대응력, 주물 내재화 기반, 밸브 인증 체계, 초저온 밸브 관련 기술자산은 고부가 제품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환경·안전 규제 강화에 따라 저누설 밸브, 긴급 차단장치, 독성가스 대응 제품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동사는 기존 플랜트 시장을 기반으로 고위험 공정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 시장 측면에서는 기존 국내 EPC 및 산업단지 고객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대리점·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한 직접 수출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당사는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을 통해 펌프·밸브 판매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Flowserve, KSB, Sulzer, Emerson 등 대형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향후 성장은 범용 제품의 단순 가격 경쟁보다 고사양 제품, 빠른 납기, 사후관리, 소재 내재화, 인증 대응력을 결합한 프로젝트 수주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주주환원 정책은 투자 매력도를 보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지속성은 안정적 현금흐름과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KZ정밀(03656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7.1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KZ정밀	X	X	X